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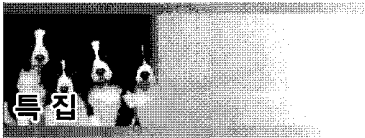
일본의 HAB 활동과 CAPP 활동

Dr. Hiroko Shibanaï



저자소개

- 일본 동경 소재 아카사카 동물병원 원장
- IAHAIO 내 Project Committee 회원
- 전 일본동물병원협회(Japanese Animal Hospital Association) 회장
- 사단법인 일본동물복지협회 상임 어드바이저
- 일본동물병원협회내 HAB 자문의원
- Japanese Service Dog Resource Academy 회장
- Japanese Hearing Dogs for Deaf People 회장
- Japan Human Animal Bond Society의 회장



HAB(Human Animal Bond : 인간과 동물의 유대 및 상호작용) 라는 단어가 일본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85년으로, 일본 동물병원협회(現 일본동물병원복지협회)가 개최한 ‘알렌 미야하라’ 하와이대학 교수의 특별강연에서였다. 이미 구미 각국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HAB, 즉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인식하고 쌍방의 복지를 아우르는 이념을 기본으로 해서 많은 조사와 연구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로 인간과 함께 가깝게 생활하는 동물을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고 불리 총래 ‘펫(Pet)’이라고 부르던 동물에 대한 인식 및 가치, 역할을 다시 조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핵가족화, 낮은 출산율, 인간애의 희박화, 물질만능, 흉악범죄 등 현상이 증가 하는 현 사회에서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동물 과의 상호작용에서 얻어지는 효과를 재인식 하고, 그 중요성에 주목하게 하였다.

이런 여러 이유에서 최근 세계 각국의 HAB는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매개활동(AAA)에서 시작되어 인간 생활의 질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과 편안함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계속되고 있다.

또한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들의 뇌 발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동물이라는 것에서 시작된 동물매개교육(AAE)으로 발달하여 그것의 효과를 정신과, 장애인 심신회복, 작업요법, 이학요법, 재활 등의 의료분야에 활용하는

병원이나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의 현장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인수공통전염병 및 알러지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런 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동물매개요법(활동)을 도입한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인간과 함께 생활해 온 동물들의 관계 및 생활 습관이 서양과 달랐으므로 HAB로의 접목 및 그 조사, 연구, 활동의 자리매김이 늦어졌다. 다행이 뒤에 소개되는 일본동물병원복지협회의 ‘사람과 동물의 교감활동’ (CAPP활동)이 1986년 시작된 이래, 17년간 특별한 사고나 알러지 발생없이 약 5,100회를 넘는 방문활동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이 활동이 재활치료나 만성환자의 심리적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의 의료형태로도 취급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도 이런 활동은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1994년 국내 다수 병원의 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의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CAPP활동의 일환으로 AAT가 시작되었다.

JAHA(Japanese Animal Hospital Association)

JAHA는 1978년에 창립되어,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HAB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 쌍방의 복지와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국 조직의 사단법인이다. 당초 JAHA는 동일한 목적을 갖은 전국의 동물병원개업 준비 수의사들의 임의단체로서 발족되었다.

본회의 정책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론, 설비, 관리, 지식, 기술의 수준을 정하고 회원들이 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계의 수의학을 연구 실천하며 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에까지 폭을 넓혀서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환경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JAHA는 1986년 인간과 동물의 교감활동으로서 Companion Animal Partnership Program(CAPP)을 기획하고 자원봉사자와 회원과 함께 동물을 동반하여 각종 시설의 방문 활동을 시작했다. 1987년 이런 활동들이 인정되어 후생성(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국 노인보건계획과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되었다. 또한 1994년에는 HAB의 이념을 일본 사회에 전파하는 대표단체로서 IAHAIO의 정회원이 되었다.

CAPP(Companion Animal Partnership Program)활동

CAPP 활동은 건강에 문제가 없고 잘 훈련된 동물들(CAPP 방문활동 기준을 통과한 동물)과 함께 각종 시설, 병원, 학교를 방문하여 마음과 몸을 재활하는 수단으로의 활동을 말한다. 방문 활동을 희망하는 시설을 평가

하고, 최종 책임자가 활동 계약서를 교환한 후, 본회 사무국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을 통지하며, 회원 수의사, 또는 자격을 획득한 자원봉사자가 리더가 되어 실시하고 있다.

이런 활동이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1986년 5월 요코하마의 특별 양로 노인홈에 서였다. 방문 활동과 동시에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물을 희망하여 현재 8두를 기증하였고 타 시설(그룹홈)에도 같이 생활하는 것이 권장되어 많은 효과가 인정되었다.

1986년 방문활동 개시 이래 이런 활동들이 높은 평가를 얻어 시설측으로부터의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올바른 습성행동학을 기본으로 길러지고 충분한 수의학적 안전성이 보장된 동물들이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면역이 저하된 사람들이 있는 병원 내의 AAA 또는 AAT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년 1회의 건강진단과 더불어 살모넬라, 지알디아, 캄필로박터, O-157 등의 장내세균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인수 공통점염병에 대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APP활동에는 CAPP활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CAPP활동 참가기준(견, 고양이, 그 외 동물, 주인)과 CAPP 인정기준(견, 고양이, 주인)의 두 단계 기준을 가지고 AAA, AAT현장에 적용 실시하고 있다. 